



### 중산층과 시민위한 새정치

- 국민참여의 정치
- 중소기업중심의 경제
- 안정과 희망의 사회
- 화해와 협력속의 통일
- 도덕적 선진국가

# 새정치뉴스

발행인:김대중 / 편집인:임채정 / 출판국장:서달원 / 인쇄인:용강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 한양빌딩 전화:784-7007 FAX:784-8095

제44호 1998년 7월16일~31일

■ 인터넷주소 국민회의 홈페이지 <http://www.new97.or.kr>

<종로판>

1996. 1. 8. 국유철도 특별법 승인 제238호



# 종로 21세기 희망의 자존심 정치!

## 2 소신·능력·정직 노무현

### 개혁과 국민통합 이끌 큰 인물

- 1946년 경남 김해 출생
- 1975년 제17회 사법고시 합격
- 197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
- 1987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
-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 1988년 국회 5공비리 청문회 활동
- 1990년 3당합당 거부
- 1991년 통합민주당 대변인
- 1993년 통합민주당 최고위원
- 1997년 SBS 뉴스대행진 진행자
-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현)
-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종로지구당 위원장 (현)

개혁과 국민대통합의 새 시대를 향한 대장정이 시작됐다.

「국민회의-자민련」 연합공천 후보로 「정치 1번지, 종로」에 출마한 노무현 후보가 지역갈등 해소와 노사화합, 상처받은 종로의 자존심을 회복할 책임자이자 「종로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식적인 선거운동 개시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미 60%대의 지지율로 야당후보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노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압승함으로써 경제회생과 국민구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에 힘을 실어 주겠다」며 지역구 곳곳을 누비고 있다.

지난 5일 후보자 등록을 마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노후보의 주요 선거전략은 일체의 상대후보 비방이나 불법·탈법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깨끗한 선거론」. 노후보는 「이명박

전의원의 금권선거로 상처받은 종로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이번 선거만큼은 반드시 깨끗하게 치뤄야 한다」며 공명선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고졸출신의 변호사로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인 노후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IMF시대 서민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 이에 따라 지금껏 서민과 소외받는 계층의 대변자 역할을 자임해 온 노후보는 「당선된다면 시원한 정치로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겠다」며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초선의원 출신임에도 「5공 청문회 스타」로서의 명성과 정계입문 이후 10여년간을 지켜온 원칙과 소신으로 어느덧 주목받는 중견 정치인의 반열에 오른 노후보는 소신·능력·정직을 무기로 「21세기를 이끌 희망의 정치구현」을 약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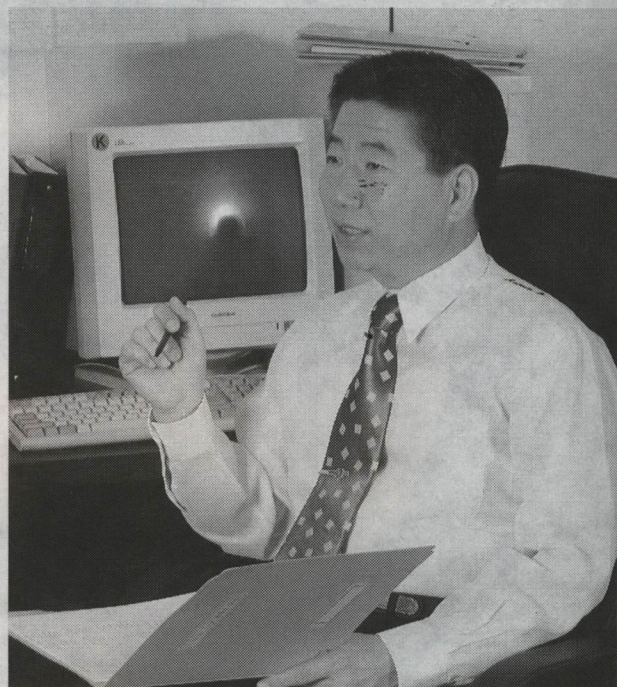
인터뷰 종로 노무현 후보

# “이제 「국민의 정부」의 개혁기수가 되겠습니다”

## 정권교체 · 지역화합 위한 10년 외길, 정치 1번지 종로의 자부심으로 남고파

『저의 약속은 종로사랑입니다.』

「청문회 스타」, 「원칙과 소신의 정치인」으로 널리 알려진 노무현 후보의 첫마디는 종로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의 강조였다. 『한국의 「정치 1번지, 종로」에 출마하게 된 것에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는 노후보는 그러나 『당선을 위해 구청장이 해야 할 공약이나 지키지 못할 약속 따위는 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한다. 그러면서 종로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멋지게 어우러진 수도 서울의 중심지로 만들고 싶은게 노후보의 솔직한 욕심이라. 「왜 노무현을 찍어야 하는가」라는 직설적인 질문에 『개혁을 위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노후보는 당선되면 평생 지켜온 원칙과 소신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 ■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는 무엇이라 보는가.

-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중대한 선거이다.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국난극복의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지금 국난극복을 위한 총체적 국정개혁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의 노력에 대해 국민에게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힘을 부여받는 도약대가 바로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

### ■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 이후 국정개혁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개혁에 대해 평가를 한다.

- 대통령의 개혁이 즉흥적이지 않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고장난 차를 한순간 고쳐 탈 수는 있지만 평소 차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실업의 증가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근본적 수술을 위해 구조조정은 불

가피한 조치이다. 다만 국민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신속하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 ■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된 동기와 당선 후 포부를 밝힌다.

- 우선 국가를 위해 기여하겠다는 마음 뿐이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지역갈등 때문에 민의가 왜곡되지 않는 정치 1번지 종로에서 당당하게 인물로서 평가받고 싶다는 것 또한 출마의 동기이다. 당선 후 계획을 말한다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한다. 단,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국민의 정부에서 개혁의 기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 여당 연합공천 후보로 선거에 출마했는데 자민련 및 이종찬 전 위원장 조직과의 협조는 어떠한가.

- 이종찬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역시 큰 정치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당을 위해 지역구를 흔쾌히 양보

해 주시고 원활한 조직 인수인계를 위해 최대한의 협조를 해주셨다. 또한 모든 지구당 행사에 이종찬 전 위원장의 사모님께서 참여하고 계시다.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인사를 드린다.

김용동 자민련 위원장님 역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신다. 자민련 당원 여러분들도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회의-자민련 연합공천 후보」인 저에게 모든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

### ■ 마지막으로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결의와 선거전략에 대해 간단히 밝혀달라.

- 지난 10년을 정권교체와 지역 화합을 위해 한 길을 걸어왔다. 이제 개혁과 국민대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 한몸을 던지겠다는 결의로 이번 보궐선거에 임하고 있다. 반드시 압승하여 국민의 정부와 당원동지들께 힘

을 드릴 것이다.

또한 종로 보궐선거는 후보의 인물로 평가받고, 집권당의 개혁을 지지하는 국민의 뜨거운 열원으로 평가받는 선거가 되도록 만들 생각이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사랑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당원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한국 정치의 자존심

## “노무현, 그는 다르다”



“노무현씨가 정치계에서 성공한다면 나보다 나이는 한참 어리지만 나는 기꺼이 그의 사무장이 되겠다.”  
김원기(노사정위원장)



“이 정권의 정치판에 노무현 같은 정치인이 성공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있다고 봐도 좋다.”  
홍사덕(국회의원)



“나는 노무현씨가 매우 투명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정치적 행로가 무조건 옳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단단한 논리와 일관성이 있어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이야말로 그가 강조하는 「신뢰의 정치」가 아닐까? 노씨가 추구하는 「신뢰의 정치」에 주목해 보기로 하자.”  
강준만(전북대 교수)



“노무현씨가 출연하는 정치무대가 있다면 나는 그 무대의 관객이 되어도 배우가 되어도 정말 신날 것 같다. 노무현씨 이번에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최종원(연극인)

## “노무현 후보를 당선시켜 동서화합의 깃발을 높이 올리자”



한화갑 원내총무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7·21 보궐선거에서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당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선거는 우리 당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선거 결과에 따라 우리 당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어야만 국민의 정부 개혁도,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금 동서화합이라는 중대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지속된 지역갈등을 청산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지금의 모든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중요한 때에 노무현 부총재는 「정치 1번지」 종로에 나섰습니다. 한나라당의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할 만큼 당당하게 열심히 뛰고 있는 노무현 부총재는 반드시 당선시켜야 할 우리당의 대표주자입니다. 지난 10년을 지역갈등으로 제일 큰 피해를 당하면서도 화합을 위해 한 길을 걷고 있는 노부총재야말로 지금 우리가 가

장 필요로 하는 정치인일 것입니다. 「청문회 스타」로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노부총재는 이제 주목받는 중견 정치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개혁과 통합의 한길을 고집해온 그의 정치철학은 저를 비롯한 못정치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당선은 지역화합과 노사화합 등 지역과 계층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어낼 한국정치의 새로운 희망이 열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노무현 부총재의 당선은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넘어 희망의 21세기를 여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노무현 부총재의 당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7.21  
재보선

# 중단없는 개혁위한 국민적 선택의 장

## 「국민의 정부」에 대한 지지와 동참으로 난국을 극복하자

지난해 12월18일 우리 국민은 「개혁」을 선택했다. 헌정사상 최초의 정권교체의 의미는 50년간 적폐된 정경유착과 우리 사회의 온갖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21세기에 대비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 달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였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고 출범한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수습하고, 6월 지방선거 승리 및 성공적인 방미외교 등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국정개혁에 나서고 있다. 방미직후 『제2의 건국정신으로 총체적 국정개혁을 단행하겠다』는 김대통령의 선언은 정치·경제·행정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변화와 개혁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는 7월21일 실시될 예정인 재보궐선거는 중대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는 김대통령의 국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중간평가에 다름 아니며, 개혁



▲7월10일 광명을 정당연설회

을 바라는 민심을 외면한 채 정부여당의 개혁작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는 거대야당 한나라당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장이기도 하다.

더구나 경기 광명읍에 출마한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을 비롯, 서울 종로의 노무현 부총재, 수원 팔달

의 박왕식 전의원 등은 모두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우리당의 간관급 스타들로서, 김대통령이 이들을 재보궐선거에 전면배치한 것은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그만큼 단호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7·21 재보궐선거는 단순히 한 지역의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선거가 아닌 국가의 운명이 달린 중대한 선거이다. 이번 선거의 결과에 따라 정국안정과 개혁의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절실히 요구된다.

난국극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강력한 지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소야대로 인한 정치구조로 국회가 정부여당의 개혁작업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중단없는 개혁을 통한 난국극복」이나, 「실지로 인한 국민적 좌절」이나의 여부는 이제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 「제2의 건국」, 부정부패 근절위한 전면적 개혁 단행



「제2의 건국」을 향한 국민의 정부의 개혁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그 성과에 따라 다가오는 21세기 국가적 운명

을 좌우할 정부의 이번 개혁조치는 「경제회생」과 「21세기 선진한국 건설」이라는 양대과제를 목표로 정치·경제·행정 등 사회전반에 걸쳐 총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까지의 「개혁」들과는 그 의미를 달리한다.

그러나 우선 가장 시급한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번 개혁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이해와 협조이다. 현재 구조조정 및 빅딜 등과 관련하여 노동계와 재벌 등 일부 이해 당사자의 반발이 있기는 하지만 「개혁」은 국민 전체의 생존과 국가적 운명이 달린 마지막 비상구이다. 국민 모두의 고통분담과 협력만이 IMF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우선 가장 시급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과 더불어 복지부동과 안일무사로 개혁의 「내부의 적」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사정작업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 공직사회에 뿌리박힌 해이한 기강을 바로잡는 것 역

시 개혁을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며,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혁을 주도하는 공직자들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부문에 대한 개혁도 여권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밖에도 교육·국방 등 사회 전부분에 대한 개혁도 속속 진행중에 있는 만큼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국민들의 지속적인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다.

### 국민회의 · 자민련 철벽공조 새바람

7·21 재보선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선거공조가 경기 광명읍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새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서울 종로, 서초갑, 경기 광명읍, 수원 팔달 등 양당의 연합공천지역에 의원지원단을 편성, 교차로 정당연설회 및 거리유세에 연사로 참석하고 있으며 시장과 백화점, 공단 등 생활현장에서 유권자들과 직접 만나 여권연합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또 일선 현장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는 지구당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 등 연합공천의 의미를 높여주고 있다.

국민회의는 유재건 부총재를 서울 서초갑에 파견, 유 부총재가 자민련 박준병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맹활약하고 있으며, 수원팔달은 공



동선대위원장이 자민련 김환진 지구당위원장이 국민회의 박왕식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뛰고 있다.

이러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철벽공조는 6·4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할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여기에 「국민의 정부」의 개혁의지에 대한 국민적 호응이 뒷받침돼 각 지역에서 연합공천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



# “노무현 이라면 믿을 수 있다”

## 대통령이 선택한 후보, 능력과 소신의 정치인

92년 14대 대선 당시 김대중 대통령후보 청년특별위원장, 97년 15대 대선에서는 김대중후보의 부산·경남지역 공동선거대책회의 의장으로 50년만의 정권교체와 「국민의 정부」출범에 일익 담당...

노무현후보의 「정치적 가능성」에 대한 김대중대통령의 기대는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1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후보는 정치인 노무현에 대해 『우리당이 집권하면 이 나라를 위해 정말 큰 일을 할 인물』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김대통령의 이 한마디 속에는 젊고 개혁적이며, 능력을 갖춘 인물 노무현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함축적으로 배어있다.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 경제위기, 거대야당의 횡포로 인한 개혁의 지연 상황에서 노무현의 개혁성과 소신은 대통령에게 커다란 희망이 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의 국정개혁에 대한 중간평가적 의미를 갖는 이번 7·21 재보궐선거에서 김대통령은 노무현의 개혁성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선택



했다.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에 노무현후보를 내세움으로써 개혁에 대한 자신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는 동시에 동서화합과 국민대통합, 노사화합을 실천하겠다는 것이 바로 김대통령의 사려깊은 의지이다.

13대총선에서 5공의 실세였던 허삼수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누르며 각광을 받았지만, 이후 반민주적인 3당합당을 거부하며 고난의 길을 걸기도 했던 노무현. 그러나 그는 이에 좌절하지 않고 93년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의 최연소 최고위원, TV방송 시사프로 진행자, 지방자치 실

무연구소 소장, 무료법률 상담소장 등으로 맹활약하며 스스로의 변화와 미래를 준비해 왔다.

지역감정의 높은 벽 때문에 낙선의 고배를 마시면서도 위기의 순간마다 김대통령을 위해 일해 온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소신, 5공특위 청문회 등에서 확인된 바 있는 정연한 논리와 정치감각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노무현만의 장점이다. 이제 노무현은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의 주역으로, 김대통령과 국민의 정부에 힘이 될 중랑급 정치인으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 종로구민에게 드리는 글

“국민대통합과 경제회생의 새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저 노무현은 이번 7월21일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대통합과 노사화합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밑거름이 되고자 함을 여러분께 밝힙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역과 계층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출신지역이나 특정정당을 담보로 지역감정에 호소하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지양하고, 정책과 능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노사화합을 이룩하는데 헌신, 봉사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지금 노사화합은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가장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자 기본 조건입니다. 저는 노사정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저를 믿어주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대변하고 정부의 정책을 합리적으로 통합하는 진정한 노사화합의 길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종로구민 여러분!

지금엔 전 국민이 합심 단결하여 경제를 살리는 것이 절대절명의 국가과제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김대중대통령과 국민의 정부에 힘을 모아 주어야 합니다. 국민회의 후보인 제가 국회로 가는 것은 바로 경제회생을 위해 국민의 정부에 힘을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 노무현은 경제회생의 주체로 나서 국민의 정부의 경제회생 노력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종로구민 여러분, 종로는 지난 반세기 동안 나라가 어지러울 때 그 중심을 잡아온 한국정치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번 종로 보궐선거는 단순히 국회의원 한사람을 새로 뽑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동서화합의 기틀마련과 국민의 정부 개혁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또한 「21세기를 이끌 희망의 정치」를 여느나, 「과거의 낡은 정치관」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거입니다.

이제 저는 항상 불의 앞에 당당히 맞서고, 젊고 패기에 찬 열정으로 걸어왔던 지난 10년을 되새기며 종로에서 새롭게 제2의 정치인생을 열고자 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과 격려를 주셨던 모든 분들께 변함없는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저, 노무현은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압승함으로써 자랑스러운 종로의 정치 전통을 이어받아 한국정치의 새장을 열고, 반드시 21세기 희망의 정치를 구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 무 현 올림

### 노무현에게 듣는다!

합동연설회 7월17일 오후 4시 대신중고등학교, 18일 오후 4시 서울사대부속여중  
정당연설회 7월20일 오후 7시 창신초등학교

## “노무현, 깨끗하고 시원한 정치인”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한다.



노무현, 그를 생각하면 시원해진다. 그가 나에게 시원함을 주는 이유는 뭘까.

아마도 내가 노무현씨를 처음 알았던 때는 88년 5공 청문회때가 아닌가 싶다. 아직 어리고 철이 없던 시절이었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신문 가판대에, 아니면 9시 뉴스에서 잠깐잠깐 비치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는다.

젊은 정치인, 신선한 감각, 그의 개혁적 정치성향과 특이한 정계 입문과정 등이 우리 젊은세대들에게 노무현씨가 인기있는 이유들이다.

그의 경력을 잠시 본 적이 있는데 「고졸 출신의 변호사」라는 점이 특히 눈길을 끈다. 굳이 내가 법

대에 다니는 학생이라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전문적인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고시공부를 한다는 것은 스타트가 낮은 단거리 육상선수과 같다. 누구나 단 한번의 기회를 잡기위해 나름대로의 결심을 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 노무현씨는 그런 점에서 「끊기있는 마라토너」였다는 생각을 해 본다.

「최고의 엘리트」라는 법조계가 「정권의 시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았던 시절에 노무현씨는 인권 변호사로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섰다. 그의 내면에 어떠한 신념과 믿음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보여준 모습은 분명 낮은 곳에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결국 내가 노무현씨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의 개인적인 노력에 대한 존경심과 더불어 어두운 곳에서

정치권에 깨끗한 바람을 몰고와 청문회 스타로 국민들의 각광을 받았으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은 사람. 과거 3당합당 당시 이를 거부하고 야당의 길을 고집했던 모습을 보면 일면 답답하고 고지식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사회에 대해 아직 미숙한 나에게도 노무현씨의 이런 모습은 『요즘처럼 답답한 세상속에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하는 그런 시원함을 준다.

이제 노무현씨는 변호사보다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가 굳혀져 가고 있다. 내가 바라는 노무현씨의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은 정치권의 높은 위치에 있어도 항상 낮은 곳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다. 젊은 시절의 열정을 잊지않고 항상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정치인 노무현으로 남기를 기대해본다.

이영란 (서울시립대 법학과 3년)